

## 교육학과 기독교교육학의 관계에 대한 탐구

박상진(장신대 기독교교육학 교수)

### 논문초록

교육학과 기독교교육학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일반적으로 기독교교육학은 신학에 속한 학문으로 이해되며, 신학대학교 안의 한 전공으로 존재하고 있고, 교육학은 사회과학의 한 분야로서 일반 대학교 안의 한 전공으로 존재한다. 이러한 기독교교육학과 기독교적 교육학은 상호 밀접한 교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분리되어 왔다. 이 논문은 '신학'을 강조하는 기독교교육학과 '교육학'을 강조하는 기독교교육학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되어야함을 보여준다. 이는 교육학과 기독교교육학의 교류가 심화되어야 함을 요청하는데, 기독교인 교육자와 기독교교육학자들이 상호 교류할 수 있는 학문공동체의 형성이 필요하다. 기독교학 교교육 분야는 이러한 교류의 좋은 접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종래의 기독교교육학이 그 학문적인 관심을 교회교육현상만이 아니라 학교교육현상을 포함하여야 하며, 기독교적 교육학은 교육현상을 기독교적 관점으로 탐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교육학, 기독교교육학, 기독교학교교육, 신학, 학문공동체.

- I. 문제제기
- II. 신학을 강조하는 기독교교육학
- III. 교육학을 강조하는 기독교교육학
- IV. 기독교교육학의 성격
- V. 기독교교육학과 교육학의 만남
- VI. 제언

## I. 문제제기

기독교교육학과 교육학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한국의 경우, 기독교교육학과 교육학은 각각 별도의 학문공동체를 이루고 있고, 이 두 영역 사이에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일반적으로 기독교교육학 전공은 신학대학교 내에 개설되어 있으며, 교육학 전공자들 중 기독교인 교육학자들도 교육학 분야를 넘어서서 기독교교육학 분야와의 교류를 원활하게 갖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기독교교육이라는 동일한 실천의 장을 공유하면서도 각각의 학문의 영역에 뿌리 내린 채 서로의 학술적 활동을 공유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두 영역의 분리는 기독교교육 현상을 보다 심도 있게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로막고 있으며, 기독교교육 실천의 발전을 제한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글은 교육학과 기독교교육학의 관계를 밝히되, 기독교교육학의 성격을 논의함으로써 그 관계를 조명하려고 한다. 기독교교육학이 지니는 '기독교'와 '교육학'의 성격이 어떤 방식으로 결합되어 있는지를 규명함으로써 교육학과 기독교교육학의 관계를 파악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독교교육학의 정체성 논의 중 '신학을 강조하는 기독교교육학'과 '교육학 또는 사회과학을 강조하는 기독교교육학'을 대비시켜 살펴보고, 기독교교육학이 '기독교'적 성격과 '

교육학적 성격,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결합하고 있는지를 규명하려고 한다. 또한 교육학과 기독교교육학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교육학과 기독교교육학의 만남을 실천적으로 요청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 II. 신학을 강조하는 기독교교육학

기독교교육학에서 신학을 강조하는 다양한 입장이 있다. 여기에는 기독교교육학이 신학의 한 분야라고 생각하는 입장과 기독교교육을 신학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통로로 보는 입장이 포함된다. 기독교교육학에서 '기독교'와 '교육학'을 구분할 때 '기독교'를 보다 강조하는 입장에서 기독교교육은 기독교를 가르치는 교육,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는 교육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이 때 기독교라고 하는 내용은 신학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신학의 성격이 기독교교육을 결정짓게 되는 것이다. 신학을 강조하는 기독교 교육학의 입장에는 전통주의신학이나 신정통주의신학의 입장이 포함된다.

버취스(H. W. Burgess)는 『기독교교육론』(*An Invitation to Religious Education*)에서 전통주의신학적 접근의 특징을 몇 가지로 서술하고 있다. 첫째는 계시에 근거한 신학적 개념체계가 기독교교육의 규범이 되고 있다는 점, 둘째는 기독교교육이 구원의 메시지 전달과 동일시되고 있다는 점, 셋째는 기독교교육의 교사는 먼저 구원을 받아야하고 가르치는 은사를 지닌 사람이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넷째, 학생은 교사에게 순종하여 그 메시지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 등이다(Burgess, 1984: 38-39). 이러한 특징에서 알 수 있듯이 기독교교육에 대한 전통주의신학적 접근에서는 신학이 그 기초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정통주의신학적 접근에서 기독교교육이 신학에 의존되어 있다는 것을 가장 강하게 주장한 기독교 교육학자는 랜돌프 밀러(Randolph Crump Miller)

일 것이다. 그는 기독교교육의 실마리는 신학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기독교교육의 단초』(*The Clue to Christian Education*)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기독교교육의 실마리는 하나의 타당한 신학을 재발견하는 데 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된 살아있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학습자들을 이끌어 오는 도구로 사용되는 최상의 방법과 내용으로 기독교 진리의 배경과 관점을 제공함으로써, 그리고 부모의 지도와 기독교적 양육이 일어날 환경으로서의 교회는 생활의 친교를 사용함으로써, 기독교교육의 내용과 방법 사이의 틈을 메꿀 수 있는 타당한 신학을 재발견하는 일이다(Miller, 1950: 15)."

밀러는 이렇듯 신학이 종교교육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관건적 요인이 된다고 주장하면서 교육자는 누구나 어떤 특정한 신학을 자기 교육의 배경으로서 갖고 있다고 말한다(Thompson, 1990: 43). 물론 그러한 신학이 분명한 형태를 지니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으나, 분석해보면 그의 신학적 함의가 드러나게 되어있다고 주장한다. 밀러의 다음과 같은 진술은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의 신학의 중심적 역할을 보다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결론이 밝혀져야 하겠다. 첫째는 어떤 종교교육이론도 그 배후에는 모종의 신학이 자리하고 있다. 때때로 그 신학이 내용을 완전히 포괄해버림으로써 학습자의 가치의식을 거 짓된 가치평가에 기초한 것이 되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바른 신학, 곧 교리적이 아닌 개방된 신학이 종교교육 이론의 배경이 되고 은혜와 신앙이 그 전제가 되면, 학습자의 가치의식은 강조될 것이며, 교사와 학생의 관계는 더 넓은 교회공동체 안에서 나와 너의 차원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복음의 변화시키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적 결단을 촉구할 것이다 (Thompson, 1990: 53-54).

밀러는 신학이 마땅히 기독교교육의 이론과 실천을 위한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당시 진보적 종교교육 이론의 약점이 바로 이러한 신학의 상실이라고 보았고, 기독교교육이 기독교교육적이어야 한다면 교사는 반드시 교육을 위한 기초로서 하나의 신학을 지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밀러는 신학의 개념을 "인간과의 관계 안에서 이해된 하나님에 관한 진리"(Truth-about-God-in-relation-to-man)라고 정의했다(Miller, 1950: 5). 밀러의 이러한 신학 이해는 전통주의 신학적 접근 방법과는 차이가 있는데, 신학이 가르치는 내용을 결정한다고 보기보다는 관점을 제공해주는 것으로 보았다. 밀러는 현대과학과 세속 교육이론의 통찰들을 기독교교육에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 기독교 진리의 틀 속에서 사용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밀러는 전통주의 신학적 접근에서처럼 성서 자체가 기독교 계시라고 보지는 않았고, 성서를 역사 속에 드러내신 하나님의 구속행위를 증언한 기록으로 보았다. 즉, "계시의 증인"(witness to revelation)으로서 성서를 이해하며, 그 성서 속에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이며, "성서 전체 속에 꿰뚫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중심 주제로서 신-인 관계 속에서 열려지는 구속의 드라마"를 강조하였다. 이러한 계시 이해를 기초로 밀러는 창조(Creation), 언약(Covenant), 예수 그리스도(Christ), 교회(Church), 그리고 종말적 완성(Consummation)을 성경의 중심 주제로 이해하였다(고용수, 1994: 180).

전통주의 신학적 입장과 신정통주의신학적 입장 모두가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기독교교육학에서 신학이 차지하는 중요성이다. 어떤 신학을 갖느냐가 기독교교육의 성격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특히 신학은 기독교교육의 내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기독교교육이 진정한 '기독교'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계시의 빛 아래 있어야만 한다. 성경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하신 하나님의 자기 계시(self-disclosure)가 없이는 기독교교육이 존재할 수 없다. 진리는 오직 계시에 의존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를 이해하지 않고서 인간 상호간의 관계만을 강조한다든지, 인간의 문화유산이나 전통

만을 강조하는 것은 '비기독교적' 또는 '반기독교적'인 교육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다. 이들은 신학이야말로 기독교교육을 일반교육과 구분 짓는 기준이 된다고 본다. 전통주의 신학적 접근 또는 신정통주의신학적 접근을 하는 기독교교육학자들 중 많은 학자들이 성서신학 또는 조직신학을 전공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은 이 점에서 이상한 일이 아니다. 기독교교육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신학을 공부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기독교교육이란 그 신학적 메시지 또는 성서 이해를 전달하는 것이거나 그러한 신학적 이해로 걸러낸 내용을 전달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기독교교육학에서 신학을 강조하는 경향은 기독교교육학을 신학의 한 분야로 인식하는 데에서도 나타난다. 전통적으로 기독교교육학은 응용신학(Applied Theology) 또는 실천신학(Practical Theology)의 한 분야로 여겨져 왔다. 이론신학을 성서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으로 이해할 때 이를 교회 현장에 응용하는 신학을 응용신학으로 이해하는 경우에는 기독교교육학이 다른 설교학, 예배학, 선교학 등과 함께 이 응용신학에 속하였다. 응용신학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새로운 시도가 실천신학 운동인데 이는 실천신학을 신학의 응용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 실천 현장을 탐구하는 학문으로 이해한다. 이는 기독교교육학과 설교학, 예배학, 목회상담학, 선교학 등의 경계를 넘어서 교회의 실천을 탐구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접근이다. 이를 위해서는 신학 뿐 만 아니라 다른 학문과의 간학문적 연구의 중요성도 인정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이후에 출범한 '국제실천신학 학회'(International Academy of Practical Theology)를 중심으로 한 실천신학 운동은 종전의 실천신학 분야가 지녔던 한계를 극복하고자 실천신학의 새로운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1) 실천신학은 더 이상 단순히 이론을 응용하거나 실제 기술과 연관된 학문분야로 간주하지 않는다.
- (2) 실천신학은 단순히 교회의 실천 기능의 차원을 지원하는 '목회를 돕기

위한 신학이라는 좁은 안목을 넘어서야 한다.

(3) 실천신학은 신학이 지니고 있는 실천적 특성에 대한 근본적인 해석학적 성찰을 촉구한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실천신학적 관심은 성경 및 교리적 전통 뿐 아니라 교회의 현재와 삶의 미래적 비전을 함께 포함해서 실천-이론-실천의 순서를 지향한다.

(4) 실천신학은 경험적이며 해석학적인 방법론을 추구한다. 실천신학의 관심은 교회의 삶에 국한되지 않고,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현대사회의 종교적 문화라고 하는 더 넓은 영역으로 확장되어야 한다(고용수, 2003: 255-256).

이러한 실천신학으로서의 기독교교육학은 응용신학의 한계를 극복하고 좁은 의미의 목회나 교회사역에만 국한하지 않고 지평을 확장하며 신학만이 아닌 다른 학문과의 간학문적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여전히 신학의 범주 안에서 기독교교육학의 자리를 확인하고 있다. 사회로의 지평의 확장공적 신학(Public Theology)으로서 교회 밖을 지향하는 관심의 변화를 높이 평가할 수 있지만, 여전히 신학에 대한 의존성과 교회 중심적 학문으로서의 한계를 극복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기독교교육학은 '신학을 강조하는 기독교교육학'의 범주에 속한다. 기독교교육학과가 신학교 안에 위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학부 과정에 기독교교육학과가 없는 경우에는 대학원에 개설되어 있는 실천신학 분야의 한 전공으로서 기독교교육학전공이 존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 커리큘럼 가운데도 한 과목으로서 기독교교육학이 존재한다. 이러한 학문 분류에 의하면 기독교교육학은 신학이다. 기독교교육학은 신학의 한 분야가 되는 셈이다.

기독교교육학 전공의 교수들도 교육학을 공부한 사람보다는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 많고, 이들이 신학 공부 후에 신학의 세부 전공으로서 기독교교육학을 석, 박사과정 이후에 선택하여 공부한 경우가 많다. 신학적 지식이 풍성하고 신학적 사고훈련이 철저하다는 장점이 있으면서 교육학적, 사회과학적 지식이

나 연구방법이 부족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이런 성격을 지니는 기독교교육학은 교회 중심적일 수 밖에 없다. 최근에는 목회전체(케리그마, 레이투르기아,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디다케)를 교육적으로 접근하려는 '교육목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기독교교육은 교회교육과 동일시되고, 그 가운데서도 자라나는 세대를 위한 교회학교 교육과 동일시되는 경향이 있다. 기독교교육학이 교회교육학으로 축소되어 있는 동안 교회 밖의 다른 영역, 특히 학교교육은 기독교교육학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게 되었다.

기독교교육학이 신학의 한 분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는 것은 기독교교육학의 언어가 신학적 언어임을 의미한다. 기독교교육을 설명할 때 신학적 언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경우 신학, 즉 성서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과 깊이있는 소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일반 교육학이나 인문, 사회과학 및 자연과학과는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소통의 문제는 보다 더 기독교교육학을 교회의 경계 안에 머물게 하고, 교회 밖의 사회와 특히 교육현장과는 심한 괴리를 갖게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 III. 교육학을 강조하는 기독교 교육학

교육학을 강조하는 기독교교육학은 기독교교육학을 신학의 한 분야라고 보기도 하는 교육학의 한 분야로 이해하는 입장이다. 이 관점에서는 기독교교육학은 신학이 아니라 교육학이다. 기독교교육학도 교육학의 일종이며, 결국 교육학으로 환원(reduction)될 수 있다고 본다. 교육의 장이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 곳에서 일어나는 기독교교육도 결국 교육으로서 교육학의 이론과 학문방법으로 설명이 가능하다고 본다. 교육학을 좀 더 넓은 범주인 사회과학 또는 행동과학으로 이해할 때, 기독교교육학을 사회과학 또는 행동과학적인 접근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도 이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기독교교육학자로서 이러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학자는 마이클 리(Michael Lee)이다. 그는 기독교 교육이라는 용어 대신 종교교수(religious instruction)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그에 의하면 종교교수의 진정한 기반은 신학이 아니라 사회과학이라는 것이다. 마이클 리의 종교교수에 대한 사회과학적 접근을 이해하면 교육학 또는 사회과학을 강조하는 기독교교육학이 어떻게 신학을 강조하는 기독교 교육학과 대비되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다.

마이클 리는 종교를 삶의 스타일의 한 형태로 보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종교란 개인이 신적인 것이라고 지각하는 것과 관계된 지식, 신념, 감정, 경험, 실천이 그의 자아체계 속에서 융해되어 실현된 결과인 한 초개인적 존재와 더불어 그 개인이 누리는 산 관계를 표현하고 반영하는 삶의 스타일의 한 형태이다"(Lee, 1990: 121). 그에 의하면 종교도 삶의 스타일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는 행동과학과 사회과학으로 얼마든지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는 신앙은 하나님의 은사로 받은 삶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가르칠 수 없다는 종교교육자들의 주장은 오류라고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신앙은 가르칠 수 없다는 주장이 논리적으로 잘못을 범하는 것은 그것이 어떠한 문제에 관해서 실증적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그저 하나의 심정적 확신을 갖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증적 문제에 관한 어떤 타당한 확신이 실증적 증거에 의해서 지지되어야 한다는 것은 논리의 규칙이다. 신앙은 가르칠 수 없다는 주장이 신학적으로 오류라는 것은 신학이론에서 모든 실재는-신앙만이 아니고-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만일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신앙은 가르칠 수 없다는 것이 진리라면, 모든 실재가 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이상 이 세계에서 인간이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Lee, 1990: 129).

마이클 리에 의하면 신앙을 가르칠 수 없다는 주장은 교육적으로도 오류이다. 그 이유는 모든 행위, 삶의 스타일은 인간이 가르칠 수 있고 또 성공적으로 가르쳐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마이클 리는 교육을 의도적 교육과 비의도적 교육으로 구분하면서, 교수를 "그 과정을 통해서 바람직한 학습결과가 다소 실제로 촉진되는 의도적 교육과정과 같은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교수과정에는 네 개의 변수, 즉 교사, 학습자, 내용, 환경이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이 네 변수는 모든 교수-학습 행위에 어떤 형태로든지 항상 존재한다고 보았다(Lee, 1973: 230). 교육현상은, 그것이 종교교육현상이든 기독교교육현상이든 이 네 가지 변수로서 설명할 수 있다고 보았다. 진정한 학문은 그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며, 현상 안에 있는 변수들의 관계로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지를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현상 밖으로부터 어떤 선협적인 입장에서 출발하거나 편견으로부터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마이클 리는 『종교교수의 형태』(*The Shape of Religious Instruction*)에서 종교교수에 대한 유일하게 적절하고 타당한 거시이론을 구성할 수 있는 것은 사회과학이지 신학이 아니라고 주장한다(Lee, 1971).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신학적 방법과 사회과학적 방법 어느 쪽이 적합하고 타당한가 하는 문제는 어느 쪽이 더 거룩한 것이고 더 우세한 것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서는 만족스러운 해답을 얻을 수 없다. 어떤 이론의 적절성과 타당성은 그 이론이 그 본성상 해야 하는 일, 곧 그 이론이 다루는 현상을 설명하고 예측하고 검증하는 일을 어느 정도까지 하느냐에 따라서 측정될 수 있을 뿐이다(Lee, 1990: 146)." 마이클 리의 이러한 종교교수에 대한 사회과학적 이해는 종교교수를 신학으로 이해하는 입장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다.

종교적 교수에는 신학적 가정이 들어 있으므로 종교적 교수는 근본적으로 신학적이란 주장을 하는 것은 마치 예술, 회화, 의학, 축구, 농사, 출산과 같은 인간 활동이 일정한 신학적 가정을 가졌기

때문에 그 모든 인간 활동이 근본적으로 신학적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이 바보스럽고 웃기는 일이다(Lee, 1990: 148).

마이클 리는 종교적 교수가 교회의 실천적 과제나 목회적 과제의 한 유형이기 때문에 종교적 교수가 본질적으로 실천신학이나 목회신학의 한 형태라고 생각하는 입장을 비판한다. 그는 이것을 여러 가지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데, "춤에 대해 적절히 설명하려면 춤에 관한 이론에 의해서 되는 것이지 신학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교회건물 수리의 문제는 건축 이론으로 설명해야 제대로 되지 신학으로 설명해서 제대로 될 수 없다"고 말한다(Lee, 1990: 149). 이런 관점에서 종교적 교수도 종교적 교수이론으로 설명해야지 신학으로는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마이클 리는 종교적 교수에 대한 신학적 접근방법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신학적 제국주의자라고 부르는데, 이들을 두 종류로 분류하고 있다. 하나는 종교적 교수를 사동(messenger boy)으로 보는 사람들이고, 다른 하나는 종교적 교수를 신학을 통역하는 통역자(interpreter)로 보는 사람들이다. 사동은 신학적 학문에서 얻은 지식과 이해를 학습자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 보이이다. 좋은 사동은 자기의 생각을 조금도 보태지 않고 메시지만을 충실하게 전하는 사람이다. 마찬가지로 좋은 종교적 교수는 신학을 정확하게 전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본다. 종교적 교수를 신학의 통역자로 이해하는 입장은 종교적 교수를 학생들에게 신학적 이해와 지식을 번역하는 일과 학생들로 하여금 이 번역을 성찰하여 자신들의 삶의 사건들을 신학적인 언어로 재번역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마이클 리는 이 두 경우 모두 종교적 교수의 목표와 방법이 다 신학적이고, 신학이 종교적 교수 행위에서 종교보다 우위에 있으며, 이 경우 종교적 교수는 신학적 특수주의에 예속되게 된다고 주장한다.

마이클 리는 종교적 교수와 일반 교수를 분리시키는 것을 반대하는데, 그에 의하면 일반교수는 '세속적'이고 단지 기독교 교수만이 '종교적'이라는 주장은 마치 일반 치과 치료는 '세속적'이고 기독교인 치과의사가 기독교 정신으로 기

독교 환자의 이를 치료하는 치과 치료만이 '종교적'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이 어리석다는 것이다.<sup>10)</sup>

마이클 리는 종교적 교수에 대한 신학적 접근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가장 심각한 오류 중의 하나로 성령에 대한 그릇된 이해를 들고 있다. 그는 이것을 '성령변수오류'라고 불렀는데, 성령을 마치 독립변수인 것처럼 인식하고 종교교수를 접근하는 것은 오류라는 주장이다. 그는 "성령 가설의 근본적 약점은 그것이 명시적으로 또 암시적으로 성령을 변수로 보는 '성령변수오류(The Spirit-as-variable fallacy)'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오류란 모든 종교적 교수활동을 가능케 하는 하나의 근본적 변수가 성령이기 때문에 어떤 인간적 이론에 의해서 종교적 교수를 적절하게 설명하고 예측하고 실증할 수 있는 길은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Lee, 1990: 223). 즉, 마이클 리는 교육적 변화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서 성령의 역사가 독립적인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성령을 종교교수의 독립변수로 생각할 때 종교교수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신비한 일'로서 간주되고, 이 경우 종교교수자가 할 수 있는 일은 학생으로 하여금 배움이 시작되는 문 앞까지 이끌어주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성령이 학생을 맡아서 진짜 가

10) 마이클 리는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확신하는 바는 종교적 교수는 그것이 일반 교육의 불가피하고 복잡한 한 양상이기 때문에 모든 일반 교수에 응용하는 것과 동일한 이론, 법칙, 개념, 절차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오랫동안 일반 교수의 전 분야에서는 종교적 교수만은 예외로 하고 사회과학적 접근방법의 영향을 받아왔다. 이제 종교적 교수도 일반 교수의 뒤를 쫓아갈 시기가 온 것이 아닐까? 일반 교수가 다른 영역에서는 의례히 그 밑에 놓여 있는 접근방법을 종교교수에서도 이제 받아들여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왜 종교적 교수만이 항상 뒤에 처져야 하는가? 왜 종교적 교수만이 그 생태학적 기반과 그 원천에서부터 이탈되어야 하는가? 어떠한 종교적 교수에서도 쉽게 볼 수 있듯이 능력 있는 종교교사는 과학적 접근방법의 이론과 절차를 사용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왜 사회과학의 접근방법의 이론과 법칙과 절차를 넓게 받아들이고 의식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종교적 교수의 전 분야를 확장시켜나가는 일을 망설이고 있는가(Lee, 1990: 211-212)?"

르치는 일을 한다는 것이다. 마이클 리는 이러한 성령이 독립변수라고 하는 가설을 비판한다.

최종적 분석에 따르면, 성령가설은 종교적 교수의 신학적 이론의 궁극적 파멸을 나타내는 것이다. 어떤 이론이든지 그 이론 혹은 거시 이론의 제일 목적은 그 이론의 범위 안에 있는 현상들을 설명하고 예측하고 실증하는 데 있다. 그러나 신학적 거시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이론은 종교적 교수-학습활동을 설명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고 실증할 수도 없는데, 그 이유는 이러한 종류의 활동은 신비하고 헤아릴 수 없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Lee, 1990: 222).

마이클 리는 성령을 변수로 이해하는 것이 오류임을 두 가지로 논증하고 있다. 첫째, 성령 하나님은 모든 실재의 기반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단지 한 변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둘째, 성령이 정말 단순히 하나의 변수에 지나지 않는다면 이 변수가 관찰가능한 것이 되기 전에는 그 변수가 존재하는 지를 분간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또한 이 변수가 실재로 있다는 사실이 확신되고 그 존재 방식이 밝혀지게 되면 그 때에는 성령가설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사회과학이 설명할 수 있는 방식이 되기 때문이다. 마이클 리는 성령을 변수로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가 창조한 자연과 모든 실재 속에서 자연과 더불어 활동하기보다는 이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활동할 수 있음을 가정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본성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마이클 리는 하나님은 삼라만상을 통치하시며, 성령의 역사는 삼라만상의 변화 속에 이미 내재해 있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모든 교육행위 하나하나에서 직접 자신이 개입하거나 활동한다고 가정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성령은 자기가 만든 자연법, 그리고 계속 지켜주고 있는 자연법에 따라서 활동한다고 가정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마이클

리의 주장은 종교교수는 신학으로 이해되기보다는 사회과학으로 규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종교교수도 엄연한 사회과학적 현상이기 때문에 사회과학으로서 예측, 설명될 수 있는 현상이라고 본다. 이것이 종교교수를 전문적인 영역으로 만드는 길이며, 종교교육학을 학문으로 정립하는 길이라고 보는 것이다.

기독교교육학에 있어서 교육학을 강조하는 입장도 마이클 리의 주장과 근본에 있어서 다르지 않다. 기독교교육학의 모든 현상도 교육현상이며, 이는 교육학과 사회과학의 설명으로 입증될 수 있다고 보며, 나아가 굳이 '기독교교육학'이라는 별도의 학문이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까지 제기된다. 즉, 정의와 평가가 실현되는 교육이 다른 아닌 기독교교육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독교교육학은 올바른 교육학, 좋은 교육학과 다르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사실 진보적인 신학의 입장에서는 일반 교육학과 종교교육학이 구별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와 민주시민사회를 동일시할 때, 민주교육과 도덕교육은 바로 종교교육과 상통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독교교육학에 대한 사회과학적 입장은 기독교교육에 있어서 계시의 중요성을 약화시킨다. 기독교교육을 사회과학적 현상으로만 이해한 나머지 초자연적이고 초월적인 요소를 모든 연구에서 제외시키게 되면 그러한 전제로 인해 기독교교육은 단지 과학의 범주 내의 현상으로 제한되는 것이다. 기독교교육학은 교육학의 성격을 지니는 것은 분명하지만 교육학으로만 감화될 수 없는 초월적인 '기독교적' 차원이 있음이 분명하다.

#### IV. 기독교교육학의 성격

앞에서 기독교교육학의 정체성을 '신학'을 강조하는 기독교교육학과 '교육학 또는 사회과학'을 강조하는 기독교교육학으로 구분하고 이를 대비함으로써 살펴보았다. 각각의 입장은 일면 타당성을 지니면서도 '기독교교육학'의 어느

한 측면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여기에서는 기독교교육학이 종합학문적 성격을 지니며, 기독교교육학 안에서 신학과 교육학이 더불어 중요함을 밝히려 고 한다. 특히 신앙과 신념의 유비를 통해 기독교교육학과 교육학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드러내려고 한다.

### 1. 기독교교육학의 종합학문적 성격

기독교교육학은 신학 혹은 교육학의 양자택일(either or)의 학문이 아니다. 기독교교육학은 신학적인 성격을 지니면서 동시에(both and) 교육학적인 성격을 지닌다. 기독교교육학은 초월적인 계시를 포함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차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교사, 학생, 교재, 환경의 상호작용으로만 설명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다. 회심, 구원, 신앙성숙, 하나님 나라의 확장 등의 개념에는 이런 초월과의 관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신학적인 접근이 없이는 그 의미를 설명하기가 어렵다. 하나님의 실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초월적 차원을 포함하고 있는 기독교교육학은 더 이상 학문일 수 없다고 여겨질지 모르지만, 그런 초월적 차원이 실재한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기독교교육학은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교육학은 동시에 교육학적 성격을 지닌다. 기독교교육의 현상들에 대한 설명은 그 현상들에 대한 교육학적 설명에 상당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다. 기독교교육의 현상 중 교사, 학생, 교재, 환경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은 교육학적으로 규명될 수 있는데, 이러한 요소들이 초월과의 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학적 설명에 대한 기독교적 해석이 필요하고, 의미 설정이 필요한 것이다. 이때까지 기독교교육의 영역으로 분류되어 일반 교육학적 연구가 부족한 영역에 대해서는 보다 활발하게 교육학적인 탐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교육 현상에 대해서 교육학적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고, 기독교학교나 기독교대안학교, 그리고 기독교가정교육에 대해서도 교육학적 연구를 통해 그 현상이 교육학적으로 설명되어야 한다. 예컨대 기독교학교의 경우, 건학이념이 학생들의 학업성취나 태도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교육학적으로 규명될 수 있다. 그러나 그 건학이념이 성경에 근거한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신학적으로 탐구되어 설명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기독교교육학은 종합학문적 성격을 지닌다. 교육학도 종합학문이지만, 기독교교육학은 교육학도 포함하고 신학도 포함하는 더 폭넓은 종합학문이다. 기독교교육학은 교육학이 설명할 수 있는 범주에 대해서는 교육학적 탐구를 통해 밝히고, 신학이 설명할 수 있는 범주에 대해서는 신학적 탐구에 의존한다. 기독교교육 현상들은 교육학적 요소와 신학적 요소가 함께 공존하면서 긴장 가운데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은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과 분리할 수 없으며, 동시에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인식하는 인지적, 감성적, 행동적 변화와 분리할 수 없다. 기독교교육학은 이 현상에 대해 단지 두 가지 설명을 조합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차원을 동시에 고려하며 그 의미를 밝히는 탐구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교육학은 두 가지 학문의 훈련을 다 요청하고 있다.

## 2. 기독교 세계관과 기독교교육학

기독교교육학의 종합학문적 성격은 기독교교육학을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교육학으로 이해하는 데에서도 나타난다. '기독교 세계관으로 교육을 탐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교육학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상당히 신학을 강조하는 입장이기도 하다. 교육학자들 중 교육학 연구에 있어서 기독교적 접근을 할 때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연구를 수행하기 때문에 그들의 학문적 뿌리는 교육학에 있음이 분명하다. 그리고 교육의 대상이나 연구방법

등도 일반 교육학과 공유한다. 그러나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안경을 통해 바라보기 때문에 상당부분 기독교적 계시에 불박여 있다. 기독교 세계관이 다른 아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며 성경의 계시를 통해 교육을 바라본다는 점에서 신학적 성격을 지닌다.

기독교 세계관과 신학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기독교 세계관은 유일한 세계관이 아니다. 기독교 세계관(Christian worldviews)은 복수로 존재한다.<sup>11)</sup> 어떤 신학에 근거했느냐에 따라 다양한 기독교 세계관이 있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기독교 세계관 운동에서는 화란 개혁주의 세계관과 동일시되고 있지만, 기독교 진영 안에서도 다른 기독교 세계관이 있을 수 있다. 똑같이 '기독교 세계관'이란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그 의미가 다를 수 있는 것이다. 보다 더 진보적인 신학의 입장에서는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 대한 강조는 기독교와 비기독교, 기독교와 타종교를 너무 구분하는 이원론적 관점으로 보기 때문이다.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용어 대신에 '기독교적'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해도 역시 신학적 성격이 강조될 수 밖에 없다. 즉, '어떤' 기독교인가를 묻는 질문은 신학적이기 때문이다.

카퍼와 헌터(James C. Carper & Thomas C. Hunt)는 그들이 편집한 『미국의 종교학교교육』(*Religious Schooling in America*)라는 책에서 신학의 차이에 따라 기독교교육, 특히 기독교학교교육이 어떻게 다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Carper, 1984). 가톨릭 신학에 따른 가톨릭학교교육, 루터교 신학에 따른 루터교 학교교육, 칼빈신학에 따른 칼빈주의 학교교육, 그리고 복음주의 신학에 따른 기독교 복음주의 학교교육 등 신학에 따라 다른 형태의 기독교교

11) 아더 홈즈(Arthur F. Holmes)도 신학이 기독교 세계관에 공헌하는 점으로서 "신학적 다양성이 기독교 세계관 형성의 다양성에 공헌하는 것을 들고 있다. 그는 기독교의 다양성을 주장하면서 "신학적인 다양성은 세계관의 다양성을 말해준다"고 하였다. 홈즈는 리처드 니버(H. Richard Niebuhr)의 『그리스도와 문화』(*Christ and Culture*)에 나타나는 다섯 가지 그리스도와 문화의 관계 유형을 신학의 유형에 따른 세계관의 다양한 유형의 예로 설명하고 있다(Holmes, 1991: 60-64).

육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을 드러내고 있다. 미국의 CSI(Christian Schools International)와 ACSI(Association of Christian Schools International)의 기독교학교에 대한 입장의 차이는 이러한 신학적 입장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복음주의 신학과 화란 개혁주의 신학의 차이는 둘 다 기독교 세계관을 말하더라도 기독교적 접근의 범주 안에서 상이한 기독교 세계관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교육학 연구의 영역에서 신학이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인 신학적 탐구가 요청되며, 그러한 신학적 논의와 교육학적 논의의 만남은 더 풍성한 기독교교육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 3. 기독교교육학의 학문적 정체성: 신념과 신앙

기독교교육학이 교육학과 다른 학문적 정체성을 지니는 것은 신앙(faith)이 신념(belief)과 어떻게 다른 정체성을 지니는 것과 유사하다. 신앙은 신념과 다르다. 윌프레드 캔트웰 스미스(Wilfred Cantwell Smith)가 『신앙과 신념: 그 차이』(*Faith and Belief: The Difference Between Them*)에서 신앙과 신념의 개념들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천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그 의미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Smith, 1998). 그에 의하면 '신념'이라는 단어의 라틴어에 해당되는 'credo'는 '내 마음을 두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이는 새 신자가 세례를 받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헌신을 다짐할 때 사용하는 진술이다. 어원적으로 설명하면 credo는 cor나 cordis(마음), 그리고 do(두다, 위치시키다)로부터 온 것이다. 즉 credo는 '-에게 내 마음을 두다.' 또는 '-에게 내 마음을 드린다.'의 의미를 갖고 있다. 초대교회는 credo라는 단어를 교리적인 진술을 사용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헌신을 표현할 때 사용하였다. 그러므로 credo로서의 신념 개념은 처음에는 신앙 개념과 다를 바 없이 '마음'(heart)과 관련되었다. 그런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 신념은 신앙의 의

미가 아닌, 그것의 형성에서 지성이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그 무엇으로 간주되게 되었다. 즉 초대교회 때에는 credo가 신앙과 동일시되었는데, 점차 지적 동의와 동일시되는 '신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변화되게 되었다.

프라이스(H. H. Price)도 'belief-in'과 'belief-that'을 구별함으로써 신앙과 신념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그는 모든 종교의 신앙(belief-in)이 얇고 또는 지식(belief-that)의 상태로 바뀔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는 신앙이 사실적 명제와 평가적 명제로 바뀔 수 있으나, 신뢰에 관한 것은 'belief-that'으로 바뀔 수 없다고 보았다. 이것은 바꾸어 말해서 신념의 변화를 통해 신앙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무리 "예수는 -이다"와 같은 명제를 설명한다고 해서 'belief-in'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그는 기독교 신앙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께 찾음을 당하는 것이라고 한다(Price, 1972: 1-21).

사라 리틀(Sara Little)도 신앙과 신념을 구분하면서 그녀의 기독교교육이론을 설명하고 있다. 리틀은 특히 개혁신학적 입장에서 신앙을 이해하고 있는데, 신앙은 스스로를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관계"로 이해하고 있다(Little, 1983: 17). 즉, 신앙과 신념은 상호작용하지만, 신앙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으로 성취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응답일 뿐이라고 하였다. 그녀는 교육을 통해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신념일 뿐 신앙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진정한 기독교교육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역동적인 신앙의 차원을 포함할 때만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상의 논의를 교육학과 기독교교육학의 관계로 연결지어 이해할 때, 교육학은 신념의 형성에 공헌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차원인 신앙의 형성에 이를 수는 없다. 기독교교육학은 신념의 차원을 포함하면서 신앙의 영역까지의 변화를 추구하며, 이는 과학적인 차원만이 아닌 초월적인 차원을 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치 신앙이 신념과 상호작용하면서도 구

별되는 것처럼, 기독교교육학은 교육학과 상호작용하면서도 구별된다고 할 수 있다. 기독교교육학은 그 탐구를 위해서 교육학을 사용할 수 있고 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신앙은 신념을 포함하고 있듯이 기독교교육학은 교육학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학적인 탐구만으로는 초월적인 은혜의 차원과 성령의 사역을 그 탐구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없다. 기독교교육학은 교육학의 도움을 받아 더 분명하게 신념의 차원을 규명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그 신념의 차원이 어떻게 신앙의 차원과 연계되어 있는지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통찰할 수 있어야 한다.

기독교교육학은 교육학을 포함한다. 기독교교육 현상은 교육학으로 상당부분 해석되고 규명되어질 수 있다. 그러나 교육학으로 해석하거나 규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기독교교육 현상 중에서 교육학으로 해석하거나 규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학적 탐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에서는 기독교교육학과 교육학 간의 원활한 상호 소통이 필요하다. 기독교교육학은 교육학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아야하고, 교육학자들은 기독교교육학 영역에 있어서도 큰 공헌을 하여야 한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라고 할지라도 일반 교육현상과 다를 바 없는 많은 교육적 행위가 있다. 교사와 학생, 그리고 교재 및 환경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 교육학은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어떤 지식을 가르칠 때 사용하는 교육방법에 있어서도 얼마든지 일반 교수-학습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기독교교육학자들은 교육학의 원리들을 교회 안의 교육현상을 설명하는 데에 사용하는 것을 주저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단 범주오류를 범하지는 말아야 한다. 교회 안에서의 교육 가운데 교육현상에 대해서는 교육학의 원리가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그 범주를 넘어선 영역, 즉, 과학의 범주를 넘어선 초월의 영역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없다.

## V. 기독교교육학과 교육학의 만남

기독교교육학과 교육학의 만남은 기독교교육학이라는 학문의 발전은 물론 기독교교육 실천현장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현재는 이 두 영역간의 만남이 활발하지 못한 실정이다. 여기에서는 기독교교육학과 교육학의 만남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만남이 가능한지를 살펴해보려고 한다.

### 1. 학문적 공유

앞에서 논의한대로 기독교교육학은 신학적 성격과 교육학적 성격을 공유하고 있다. 기독교교육학은 신학과 교육학과의 지속적인 만남과 상호교류를 통해서 학문적인 발전을 꾀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독교교육학과 신학과의 만남은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다. 신학대학교 안에 기독교교육학과가 속해 있고, 신학의 전공 분야 안에 기독교교육학이 하위영역으로 위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예컨대 기독교학회(신학회) 안에 기독교교육학회가 분과학회로 존속하기 때문에 타 신학의 하위영역인 성서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과의 만남이 가능하다. 그러나 기독교교육학과 교육학의 만남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다. 기독교교육학자들은 교육학회에 속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교육학자들은 기독교인이요 교육에 대한 기독교적 접근에 관심을 갖는 경우에도 기독교교육학회에 속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기독교교육학과 교육학의 분리현상은 관심영역의 분리에도 상당히 연유하고 있다. 기독교교육학이 교회교육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왔고, 교육학은 학교교육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왔다. 이런 영역의 구분은 교회교육에 대한 교육학적 연구의 빈곤을, 학교교육에 대한 기독교교육학적 연구의 빈곤을 가져오게 되었다. 서로를 너무나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관심 영

역이 분리됨으로 인해서 상호교류 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학 영역에서는 기독교인 교육학자들을 중심으로 교육에 대한 기독교적 접근, 특히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교육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기독교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또한 기독교교육학 영역에서는 그동안 기독교교육을 자라나는 세대를 위한 주일학교 교육에만 국한시킨 것을 성인을 포함하는 전체 교회교육에 대한 관심, 특히 교육목회적 관심으로 확산되었고, 나아가 교회교육만이 아닌 학교교육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하게 되었다. 이 두 학문의 관심의 확장은 자연스럽게 두 학문의 만남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

## 2. 만남의 자리: 기독교학교교육

기독교교육학과 교육학이 만날 수 있는 장은 다양하지만, 가장 서로의 도움이 필요한 영역 중의 하나가 기독교학교교육 영역이다.<sup>12)</sup> 교회교육은 목회적 구조 안에서 계시에 대한 이해와 그로 인한 신앙적 삶의 변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기독교교육학이 교육학적 연구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상당부분 독자적인 탐구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기독교학교교육은 여전히 기독교적 이해에 기초하면서도 공교육 제도와 연계되어 있고 일반 교육현상과 공유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기독교교육학의 관심과 함께 교육학적 관심, 특히 교육학에 대한 기독교적 접근이 필요하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기독교교육이라는 점에서 단지 일반 교육학적인 탐구만이 아니라 기독교교육학적인 접근을 요청하고 있다.

기독교학교교육 영역이란 세 가지 영역을 포함한다. 첫째는 기독교대안학교로 불리어지는 기독교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다. 최근에는 교회들이 기

12) 여기에서 사용되는 '기독교학교교육'이라는 개념은 '기독교(대안)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적인 학교교육'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기독교대안학교와 기존의 미션스쿨은 물론 공교육 안에서 기독교 사들이 시도하는 학교교육에 대한 기독교적 접근까지를 아우르는 개념이다.

독교대안학교를 설립하는 경향이 있는데, 단지 교회학교를 통한 교회교육만이 아니라 교과목과 교수방법에 대한 것은 물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에 대한 기독교적 접근을 추구하는 영역이다. 둘째는 미션스쿨로서의 기독교 학교이다. 즉, 공교육 안에서 인가받은 학교로서 기독교교육을 추구하는 학교를 의미한다. 지금까지 미션스쿨로서 불리어지는 이 학교들이 명실상부한 기독교학교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은 기독교학교교육의 중요한 과제이다. 셋째는 일반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독교교육을 비롯해 공교육 자체를 보다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개혁해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모든 노력을 포함한다. 이 세 영역 모두 기독교교육 학자와 교육학자의 탐구를 요청하고 있다.

### 3. 공통의 비전: 기독교교육운동

기독교교육학과 기독교적 교육학은 기독교교육운동이라는 공통의 비전을 공유한다. 기독교교육운동은 교육의 영역에서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의미한다. 왜곡된 교육, 창조 질서에서 벗어난 교육, 인간의 욕망에 의해 지배당하는 교육은 기독교교육이 아니다. 기독교교육은 하나님의 교육이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교육이다. 그 장이 가정이든, 교회든, 학교든, 사회든, 미디어든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은 어느 곳이나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기독교교육학의 비전이요 기독교교육 기관이나 단체의 비전이다.

교육학을 연구하는 기독교인의 소명은 교육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크리스천 교육학자들은 하나님을 떠난 교육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육으로 회복시키는 일군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각 분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하나님의 일군들이 파송 받을 때, 그들은 교육의 영역으로 파송 받은 사람들

이다. 그들의 비전도 교육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점에서 기독교교육학자와 크리스천 교육학자의 비전은 다르지 않다. 각각의 역할이나 강조점은 다를 수 있지만 비전은 동일한 것이다.

## VI. 제언

기독교교육학과 교육학의 만남, 이것은 학자들의 만남과 학문의 만남 모두를 의미한다. 이 땅에 기독교교육운동이 활발히 일어나고 교육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기 위해서는 이 만남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의 노력이 요청된다.

### 1. 기독교학교교육학회 발족

기독교학교교육에 관심 있는 기독교교육학자들과 크리스천 교육학자들의 학술적인 만남이 필요하다. 현재 기독교교육학회에도 '학교교육분과'라는 형태로 학교교육에 관심 있는 기독교 교육학자들의 모임이 있고, 교육학자들 가운데 기독교적인 접근에 관심 있는 학자들이 기독교학문연구회 안에 '교육분과'라는 형태로 모임을 갖고 있는데, 이들이 함께 만나 교류하며 공동의 학문적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그 한 가지 방법으로 가칭 '기독교학교교육학회'를 발족하는 것이다.

사실 그동안 한국에 많은 기독교학교가 설립되어 존재하고 있고, 얼마 전부터 기독교대안학교들이 설립되고 있으며, 좋은교사운동을 비롯한 기독교사운동이 활발히 펼쳐지고 있지만 이 분야에 대한 연구와 학술적인 지원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기독교학교교육이라는 실천은 존재하지만 이러한 실천에 대한 학문적 탐구를 통한 반성(reflection)과 재구성(reconstruction)이 부족

한 실정이었다. 기독교학교교육학회는 두 학자공동체가 만나고 다양한 인접학문의 학자들과 교류하면서 이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또한 현장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이론과 실재가 괴리되지 않고 상호 통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다.

## 2. 학문적 소통의 노력: 신학과 교육학의 이중언어 구사

기독교교육학과 교육학의 활발한 만남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두 학문 간의 커뮤니케이션이다. 기독교교육학은 지나칠 정도로 신학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 교육학은 교육학적인 또는 사회과학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기독교교육학은 신학과 소통해야 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신학적인 언어에 능통해야 하지만, 동시에 교육학과 소통을 위해서는 교육학적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이중언어자'가 되어야 한다. 기독교교육에 대한 신학적 용어들을 일반 교육학과 소통할 수 있는 교육학 용어로 번역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구원, 회심, 성화, 소명, 은혜, 섭리 등에 대한 교육학적 설명도 필요하고, '기독교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서 기독교교육 현상을 설명하려는 노력이 요청된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은 교육학자들과의 소통도 중요하고, 특히 공교육 개선과 관련된 사항은 그들의 이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교육학자들, 특히 기독교인 교육학자들이 신학적인 언어에 익숙할 필요가 있다. 교육 현상에 대한 기독교적 성찰은 신학적인 언어로부터 도움을 받을 때 그 의미가 더욱 분명해질 수 있다. 많은 교육 현상들에 대해 기독교인마저도 신앙과 괴리된 채 세속적인 관점을 갖게 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 그 현상에 대한 신학적 언어와 기독교적 설명의 부재를 들 수 있다. 예컨대 입시 문제의 경우, 입시를 세속적인 경쟁의 관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소명, 은사,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등의 신학적인 언어로 설명될 때 기독교적 신앙과 일관된 기독교적 입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다(박상진, 2008). 이렇듯 서로의 언

어를 배워서 소통을 원활히 할 때 그 만남과 상호 이해와 교류의 깊이도 더해질 수 있을 것이다.

### 3. 기독교교육공동체 형성

기독교교육학과 교육학의 만남은 이 땅의 교육을 '하나님의 교육'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교육의 영역에서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학자들의 연대만이 아니라 다양한 기독교교육실천가들과의 연대를 통한 기독교교육공동체 형성을 요청하고 있다. 한국교회와 각 교단, 기독교학교 설립 및 회복운동, 기독교사운동, 기독교부모운동, 기독교대안교육운동, 학원선교단체, 그리고 기독교교육 지원 기관 및 단체들이 상호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대안적 기독교교육공동체를 형성하여야 한다.

기독교교육학과 교육학, 그리고 기독교교육학자와 기독교인 교육학자의 만남은 '기독교교육학'이라는 학문 분야가 이미 그 명칭에서부터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기독교교육학자들이 교회교육만이 아닌 교육일반, 특히 학교교육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기독교인 교육학자들이 '기독교인'이면서 '교육학자'인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기독교적 교육학'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면 기독교교육학자들과 교육학자들은 한 비전 안에서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두 학문 간의 만남을 통해 이 땅에 새로운 기독교교육운동이 일어나서 이제는 고통이 되어버린 교육현실을 '하나님의 교육'으로 변화시킬 수 있기를 소망한다.

### 참고문헌

- 고용수 (1994), 『만남의 기독교교육사상』,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_\_\_\_\_ (2003), 『현대기독교교육사상』,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박상진 외 (2008), 『입시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 Burgess, H. W. (1984), *An Invitation to Religious Education*, 오태용 역, 『기독교교육론』, 서울: 정경사.
- Carper, James C. and Thomas C. Hunt (1984), *Religious Schooling in America*, Birmingham: Religious Education Press.
- Holmes, Arthur F. (1991), *Contours of a World View*, 이승구 역, 『기독교 세계관』, 서울: 도서출판 엠마오.
- Lee, James Michael (1990), "종교교수의 진정한 기반" Thompson, ed., *Religious Education and Theology*, 손승희 역, 『종교교육과 신학』,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 \_\_\_\_\_ (1973), *The Flow of Religious Instruction*, Alabama: Religious Education Press.
- \_\_\_\_\_ (1971), *The Shape of Religious Instruction*, Birmingham, Alabama: Religious Education Press.
- Little, Sara (1983), *To Set One's Heart: Belief and Teaching in the Church*, Atlanta: John Knox.
- Miller, R. C. (1950), *The Clue to Christian Education*,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 Price, H. H. (1972), "Belief-In and Belief-That," *Religious Studies*, 1, 1-21.
- Smith, Wilfred Cantwell (1998), *Faith and Belief: The Difference Between Them*, Boston: Oneworld.
- Thompson, Norma H. ed. (1990), *Religious Education and Theology*, 손승희 역, 『종교교육과 신학』,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 ABSTRACT

### The Relationship between Education and Christian Education as a Discipline

Sang Jin Park(Presbyterian College &  
Theological Seminary)

Wha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education and Christian education as a discipline? In the Korean context, the academic community of Christian education studies is sadly alienated from the education community. There is insufficient interaction between the two. Departments teaching Christian education belong to theological seminaries, and those of education are located in the universities. This separation is an obstacle, both for the scientific explanation of Christian education as a phenomenon and for a more Christian approach to education itself. This study analys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udy of education and Christian education. It searches for the meaning and the relationship of the two elements 'Christian' and 'education' in 'Christian education'.

This study shows the importance of integration in Christian education. A 'both-and' approach seems more appropriate for Christian education than the existing 'either-or' conception. Both theology and the science of education contribute to a sincere grasp of Christian education. This calls for the interaction of Christian